

문화도시 명품도서관 건립계획 연구

A Study on the Plans to Build a Landmark Library in a Cultural City

윤 희 윤 (Hee-Yoon Yoon)*

오 선 경 (Seon-Kyung Oh)**

목 차

- | | |
|-----------------------|---------------------|
| 1. 서 론 | 3. S구 명품도서관 건립 시나리오 |
| 2. 명품도서관 건립 관련 인식도 조사 | 4. 요약 및 제언 |

초 록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은 총 1,271개관이고, 기초자치단체별 평균은 5.6개관이다. 그럼에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방문·여행할 때 필수 순례코스에 포함될 정도의 명품도서관, 즉 랜드마크나 핫플레이스로 간주될 만한 명소는 거의 없다. 이에 2024년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수립·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문화중심 도시재생,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명품도서관 건립'을 실행과제로 확정하였다. 향후 5년간 문화도시 위주로 명품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D시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 지정된 S구를 대상으로 D시 시민 및 S구 구민의 인식도 조사 결과, D시 관광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명품도서관 건립 시나리오(중요성과 목적, 건립 후보지 평가·선정, 핵심적 역할과 기대효과, 건립규모 및 비용 추계 등)를 제시하였다. D시 및 S구의 핫플레이스인 수성못 인근에 랜드마크형 명품도서관이 건립될 경우, S구가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및 문화도시로 격상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유혹하는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As of the end of 2023, there were a total of 1,271 public libraries in Korea, with an average of 5.6 per basic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re are few libraries that can be considered as landmarks or hotspots, which is to say, libraries that are considered as a must-see pilgrimage for both Koreans and foreigners when visiting and traveling. Therefore, the Fourth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24-2028), which was established and confirmed by the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under the President on May 29, 2024, identified the construction of landmark libraries in connection with culture-oriented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city projects as an implementation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construction of landmark libraries will be promoted mainly in cultural cities over the next five years. This study presents a scenario for the construction of a landmark library (importance and purpos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candidate sites, key roles and expected effects, scale and cost estimation, etc.)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D city citizens and S-gu, which is designated as a cultural city as well as a basic local government representing D city, and tourism data for D city. If a landmark library is built near Suseongmot, a hotspot in D city and S-gu, it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upgrading of S-gu to a top-class library and cultural city in the country, but will also become an attraction for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키워드: 문화도시, 공공도서관, 명품도서관, 도서관 건립 시나리오

Cultural City, Public Library, Landmark Library, Library Construction Scenario

*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yhypro@naver.com / ISNI 0000 0000 5076 3031) (제1저자)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oskpro@joongbu.ac.kr / ISNI 0000 0004 6419 9098)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10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11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4): 149-171,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4.149>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모든 공공도서관의 태생적·본질적 정체성은 지식정보센터이고, 파생적·사회적 정체성은 문화향유 거점과 평생학습 산실이며, 재화적·장소적 정체성은 지방공공재와 커뮤니티 센터(제3의 장소)다. 이를 위해 '공비운영(행정 책임주의), 만민공개(민주주의), 무료제공(공리주의)'을 이념적 지주로 삼아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문화·학습프로그램서비스, 시설·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독서활동, 지식습득, 평생학습, 문화향유, 정보격차 해소, 공동체문화 조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선진국일수록 많은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총 1,271개관(지자체 1,008개, 교육청 235개, 사립 28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 기초자치단체(226개)로 나누면 평균 5.6개관에 달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3차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확충정책에 주력한 나머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방문·여행할 때 필수 순례코스에 포함될 정도의 명품도서관, 즉 랜드마크나 핫플레이스로 간주될 만한 명소는 거의 없다. 『도서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역 대표도서관도 대체로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에 불과할 뿐, 당대 및 후대를 위한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간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에 2024년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확정·공표한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은 '정책목표 2: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에서 핵심과제(2-1.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추진과제의 하나로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을 위한 2가지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하나가 '문화중심 도시재생,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명품도서관 건립'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문화도시를 위주로 명품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역별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D시 시민 및 S구 구민의 인식도 조사 결과, D시 관광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D시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인 S구의 명품도서관 건립 시나리오(중요성과 목적, 건립 후보지 평가·선정, 핵심적 역할과 기대효과, 건립규모 및 비용 추계 등)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S구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은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도시 및 문화도시로 격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사될 경우, D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학술논저, 연구조사보고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D시 및 S구의 장기발전계획과 공공도서관 중장기 계획 등)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둘째, 관계 법령(도서관법, 지역문화진흥법, D시 및 S구 도서관 관련 조례 등), 통계데이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한국도서관연감 등) 및 사례조사(S구 공공도서관 발전계획)를 분석해 논거를 확보한다.

셋째, 기존 설문결과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집단(시민, 관계자, 전문가)의 S구 명품도서관 건립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다.

넷째, 방문조사(사서, 문화·도서관정책 담당자)를 통해 S구 명품도서관의 건립 후보지, 건립규모 및 비용조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2. 명품도서관 건립 관련 인식도 조사

2.1 D시 시민의 인식도 분석

먼저 D시가 2020년 「D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1,509명) 및 공무원(918명)을 대상으로 'D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과제'를 설문한 결과, <표 1>과

같이 '문화시설 확충'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대구광역시, 2020, 69).

다음으로 2022년 D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이용자(총 385명)를 대상으로 D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표 2>를 보면 서비스(생활) 권역별 도서관 건립 확대(3.78)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윤희운, 오선경, 2023, 60).

마지막으로 2022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D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8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이용자(유효 응답자 218명)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먼 거리·교통불편(29.4%), 필요한 자료 부족(18.8%), 희망 프로그램 부족(1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대구광역시, 2022, 73).

요컨대 여러 인식도 조사를 종합하면 D시 시민은 도서관 건립과 문화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D시가 '교육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베이스캠프인 도서관을 확충하여 국가

<표 1> D시 문화·관광발전 실행과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복수 응답, %)

실행과제	시민	공무원	비고
문화시설 확충	33.7	33.4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확충	34.5	37.3	
전문인력 양성	21.5	11.2	
주민 문화의식 증대	24.9	18.6	
문화콘텐츠 관련 개발환경 조성	22.5	35.0	
문화향유 지원 정책	13.3	11.2	
기존 관광자원 정비	15.0	9.6	
특화 관광자원 개발	10.2	22.1	
숙박·음식점 등 관련 서비스 제고	9.6	8.2	
관광지 접근성 제고(교통편의)	6.2	7.4	
기타	0.7	0.4	

〈표 2〉 D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과제

우선 추진 정책과제	평균	비고(순위)																														
서비스(생활) 권역별 도서관 건립 확대	3.78	<table border="1"> <tr><td>신간 수집 확대</td><td>3.93</td></tr> <tr><td>예산 증액</td><td>3.91</td></tr> <tr><td>권역별 건립 확대</td><td>3.78</td></tr> <tr><td>전문사서 충원</td><td>3.59</td></tr> <tr><td>문화기관과의 협력</td><td>3.53</td></tr> <tr><td>접근성 향상</td><td>3.5</td></tr> <tr><td>운영시스템 체계화</td><td>3.49</td></tr> <tr><td>이용 저해요인 개선</td><td>3.45</td></tr> <tr><td>전시/공연공간 확대</td><td>3.41</td></tr> <tr><td>대출책수·대출기간 확대</td><td>3.34</td></tr> <tr><td>스터디 공간 제공</td><td>3.33</td></tr> <tr><td>통합관리시스템화</td><td>3.31</td></tr> <tr><td>자원봉사활동 촉진</td><td>3.22</td></tr> <tr><td>동아리활동 장려</td><td>3.2</td></tr> <tr><td>사서 직무교육 강화</td><td>3.2</td></tr> </table>	신간 수집 확대	3.93	예산 증액	3.91	권역별 건립 확대	3.78	전문사서 충원	3.59	문화기관과의 협력	3.53	접근성 향상	3.5	운영시스템 체계화	3.49	이용 저해요인 개선	3.45	전시/공연공간 확대	3.41	대출책수·대출기간 확대	3.34	스터디 공간 제공	3.33	통합관리시스템화	3.31	자원봉사활동 촉진	3.22	동아리활동 장려	3.2	사서 직무교육 강화	3.2
신간 수집 확대	3.93																															
예산 증액	3.91																															
권역별 건립 확대	3.78																															
전문사서 충원	3.59																															
문화기관과의 협력	3.53																															
접근성 향상	3.5																															
운영시스템 체계화	3.49																															
이용 저해요인 개선	3.45																															
전시/공연공간 확대	3.41																															
대출책수·대출기간 확대	3.34																															
스터디 공간 제공	3.33																															
통합관리시스템화	3.31																															
자원봉사활동 촉진	3.22																															
동아리활동 장려	3.2																															
사서 직무교육 강화	3.2																															
도서관 접근성 향상(대중교통 노선 개선 등)	3.50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3.31																															
도서관 운영시스템 체계화	3.49																															
전문사서 충원	3.59																															
사서 직무교육 강화	3.20																															
도서관 예산 증액	3.91																															
신간자료 수집 확대	3.93																															
대출책수, 대출기간 확대	3.34																															
사랑방·스터디 공간 제공	3.33																															
동아리활동 장려	3.20																															
자원봉사활동 촉진	3.22																															
이용저해 개선(층별 식음공간 제공, 소음통제 등)	3.45																															
전시·공연 공간 확대	3.41																															
다른 문화기관(박물관, 미술관 등)과의 협력	3.53																															

〈표 3〉 D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불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계(%)	비고(응답률 순위)														
도서관이 멀고 교통이 불편함	64(29.4)	<table border="1"> <tr><td>멀고 교통 불편</td><td>29.4</td></tr> <tr><td>필요한 자료 부족</td><td>18.8</td></tr> <tr><td>희망 프로그램 적음</td><td>16.1</td></tr> <tr><td>각종 규제조항 많음</td><td>9.6</td></tr> <tr><td>대출책수·대출기간 적음</td><td>9.6</td></tr> <tr><td>최신자료 안내 부실</td><td>8.7</td></tr> <tr><td>개관시간 짧음</td><td>7.8</td></tr> </table>	멀고 교통 불편	29.4	필요한 자료 부족	18.8	희망 프로그램 적음	16.1	각종 규제조항 많음	9.6	대출책수·대출기간 적음	9.6	최신자료 안내 부실	8.7	개관시간 짧음	7.8
멀고 교통 불편	29.4															
필요한 자료 부족	18.8															
희망 프로그램 적음	16.1															
각종 규제조항 많음	9.6															
대출책수·대출기간 적음	9.6															
최신자료 안내 부실	8.7															
개관시간 짧음	7.8															
도서관 개관시간이 짧음	17(7.8)															
필요한 자료가 부족함	41(18.8)															
최신자료 안내서비스가 부실함	19(8.7)															
대출 가능한 책수가 적고 대출기간이 짧음	21(9.6)															
희망 도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적음	35(16.1)															
각종 규제조항(금지, 제한 등)이 많음	21(9.6)															
계	218(100.0)															

최저 기준인 750m(도보 15분, 차량 10분)를 충족하고 D시를 대표하는 명품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2 S구 구민의 인식도 분석

먼저 S구가 202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2,427명(구민 1,509명, 공무원 918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2030 S구 모습'을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이 '여유와 품격이 있는 문화예술도시'(30.3%)가 단연 1위였고, 그 다음이 녹색도시(15.0%), 스마트도시(12.2%), 따뜻한 도시(8.2%), 인재가 양성되는 도시(8.0%)의 순으로 나타났다(수성구, 대구광역시, 2020, 74).

다음으로 S구가 미래 문화·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행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5〉에 집계한 바와 같이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확충(35.6%), 문화시설 확충(33.5%),

〈표 4〉 희망하는 2030 S구 모습(복수 응답, %)

구분	구민 (N=1,509)	공무원 (N=918)	계 (%)	비고 (응답률 순위)
여유와 품격이 있는 문화예술도시	25.9	37.6	30.3	문화예술도시 30.3
공원과 녹지가 조화된 녹색도시	12.5	19.1	15.0	녹색도시 15.0
오염과 공해가 없는 깨끗한 도시	7.6	4.6	6.4	스마트도시 12.2
역사와 문화자원이 잘 보존된 도시	4.2	2.2	3.5	따뜻한 도시 8.2
재난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5.5	3.7	4.8	인재양성도시 8.0
첨단화된 편리한 스마트도시	11.9	12.7	12.2	깨끗한 도시 6.4
인재가 양성되는 도시	9.9	5.0	8.0	지식산업도시 5.4
돌봄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도시	8.1	8.3	8.2	안전한 도시 4.8
고령화 사회 대비 고령친화도시	5.5	2.5	4.4	고령친화도시 4.4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5.0	2.6	4.1	아름다운도시 4.1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지식산업도시	6.0	4.6	5.4	역사문화자원 보존도시 3.5
기타	0.5	0.5	0.5	기타 0.5

〈표 5〉 S구 문화·관광발전 실행과제 인식도 비교(복수 응답, %)

실행과제	구민 (N=1,509)	공무원 (N=918)	계 (%)	비고 (응답률 순위)
문화시설 확충	33.6	33.4	33.5	공연·전시프로그램 확충 35.6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확충	34.5	37.3	35.6	문화시설 확충 33.5
전문인력 양성	21.5	11.2	17.6	문화콘텐츠 조성 27.2
주민 문화의식 증대	24.9	18.6	22.5	주민 문화의식 증대 22.5
문화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22.5	35.0	27.2	특화 관광자원 개발 18.5
문화향유 지원 정책	13.3	11.2	12.9	전문인력 양성 17.6
기존 관광자원 정비	15.0	9.6	13.0	기존 관광자원 정비 13.0
특화 관광자원 개발	10.2	22.1	18.5	문화향유 지원 정책 12.9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 제고	9.6	8.2	9.1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 제고 9.1
관광지 접근성 제고	6.2	7.4	6.7	관광지 접근성 제고 6.7
기타	0.7	0.4	0.6	기타 0.6

문화콘텐츠 개발환경 조성(27.2%), 주민 문화의식 증대(22.5%), 특화 관광자원 개발(18.5%), 전문인력 양성(1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수성구, 대구광역시, 2020, 69).

마지막으로 2023년 하반기 약 2개월간(11.25-12.8) 구민 등 718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S구 발전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표 6〉에 집계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99.4%)이 매우 높

았다. 성별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였고, 거주지별로는 만촌동, 수성동, 황금동·중동, 상동·파동·두산동, 고산동이 각각 100%인 가운데 지산·범물동(98.7%), 범어동과 기타 지역(각 9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공무원·군인, 자영업, 무직, 기타가 각각 100%이고, 그 외는 학생(98.1%), 프리랜서(97.9%), 전문직(97.6%)의

〈표 6〉 도서관의 S구 발전 기여도 및 점수

구분(응답자수)		부정	긍정	점수	비고	
성별	남(273)	0.8	99.2	90.5	<p>수성구 발전 기여도 점수(점)</p>	
	여(445)	0.5	99.5	91.2		
거주지별	범어동(156)	3.8	98.6	90.2		
	만촌동(50)	0.0	100.0	95.0		
	수성동(55)	0.0	100.0	89.1		
	황금동·중동(57)	0.0	100.0	93.9		
	상동·파동·두산동(31)	0.0	100.0	87.1		
	지산·범물동(90)	1.3	98.7	90.6		
	고산동(195)	0.0	100.0	92.2		
	기타 지역(84)	1.4	98.6	88.1		
직업별	학생(58)	1.9	98.1	87.1		<p>수성구 발전 기여도 점수(점)</p>
	사무직(85)	0.0	100.0	91.5		
	전문직(96)	2.4	97.6	88.0		
	공무원·군인(84)	0.0	100.0	93.5		
	생산직(5)	0.0	100.0	100.0		
	서비스직(21)	0.0	100.0	95.2		
	자영업(38)	0.0	100.0	88.8		
	프리랜서(56)	2.1	97.9	90.6		
	기타(89)	0.0	100.0	90.4		
	무직(186)	0.0	100.0	92.3		
	계(718)	0.6	99.4	90.9	-	

순으로 높았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만족도는 평균 90.9점으로 매우 높았다(수성문화재단, 2023, 77).

반면에 향후 구립도서관이 보완·개선해야 사항을 집계한 〈표 7〉을 보면 1순위는 성별·거주지별·직업별을 불문하고 대체로 신간수집 확대, 2순위는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확대로 나타났으나, 거주지별 중 상동·파동·두산동과 직업별 중 생산직은 서비스 권역별 도서관 건립 확대를, 직업별 중 학생은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확대를 1순위로 지목하였다(수성문화재단, 2023, 87).

요컨대 여러 인식도 조사를 감안할 때 도서관이 S구 비전인 ‘차별화된 유일한 S구’의 5대 목

표 중 하나인 ‘글로벌 교육문화도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권역별 도서관 건립, 신간수집,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전시·공연 공간 등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방문·여행할 때 랜드마크나 핫플레이스로 간주될 만한 명품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도서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2023년 11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명시된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를 위한 실행계획인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을 S구에서 추진·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이 시급하다.

〈표 7〉 S구 구립도서관 개선·보완사항(복수 응답, %)

구분(응답자수)		도서관 건립 확대	전문 사서 충원	직무 교육 강화	신간 수집 확대	대출 책수· 기간 확대	스터 디룸 등 제공	동아리 활동 장려	자원 봉사 촉진	이용 저해 개선	전시· 공연 공간 확대	운영 시간 확대	기타
성별	남(273)	29.3	15.4	7.7	59.0	28.6	23.1	17.6	15.0	16.5	28.9	30.0	7.0
	여(445)	25.8	6.7	9.2	64.3	38.2	22.7	15.5	9.0	15.5	33.7	22.0	7.9
거주지별	범어동(156)	25.6	10.3	9.6	64.1	37.2	17.3	15.4	9.0	14.1	28.2	26.3	9.6
	만촌동(50)	26.0	12.0	12.0	64.0	30.0	20.0	24.0	18.0	6.0	26.0	32.0	8.0
	수성동(55)	23.6	12.7	9.1	63.6	41.8	29.1	16.4	18.2	18.2	41.8	38.2	10.9
	황금동·중동(57)	40.4	12.3	3.5	64.9	43.9	24.6	17.5	10.5	12.3	29.8	24.6	1.8
	상동·파동·두산동(31)	51.6	9.7	9.7	45.2	32.3	25.8	16.1	9.7	6.5	29.0	19.4	3.2
	지산·범물동(90)	25.6	11.1	8.9	65.6	32.2	20.0	11.1	6.7	14.4	28.9	26.7	5.6
	고산동(195)	25.6	6.7	7.7	65.6	32.8	29.2	15.4	12.8	24.6	32.3	24.6	7.2
	기타 지역(84)	20.2	11.9	9.5	50.0	28.6	16.7	20.2	9.5	10.7	40.5	11.9	9.5
직업별	학생(58)	10.3	6.9	5.2	50.0	58.6	36.2	13.8	13.8	19.0	20.7	46.6	1.7
	사무직(85)	31.8	5.9	8.2	67.1	23.5	24.7	14.1	9.4	15.3	27.1	31.8	10.6
	전문직(96)	35.4	15.6	7.3	59.4	32.3	22.9	9.4	11.5	12.5	32.3	29.2	7.3
	공무원·군인(84)	17.9	7.1	3.6	58.3	39.3	16.7	14.3	7.1	6.0	25.0	22.6	8.3
	생산직(5)	80.0	20.0	0.0	60.0	40.0	20.0	0.0	40.0	0.0	40.0	40.0	0.0
	서비스직(21)	28.6	9.5	9.5	47.6	38.1	23.8	4.8	9.5	23.8	33.3	33.3	0.0
	자영업(38)	26.3	5.3	10.5	76.3	26.3	21.1	18.4	18.4	5.3	31.6	26.3	7.9
	프리랜서(56)	25.0	14.3	14.3	60.7	30.4	33.9	33.9	17.9	16.1	41.1	25.0	7.1
	기타(89)	25.8	11.2	11.2	70.8	38.2	22.5	15.7	12.4	20.2	36.0	19.1	11.2
	무직(186)	30.1	10.2	9.7	62.4	31.7	17.7	18.8	8.6	21.0	35.5	15.6	7.0
계(718)	27.2	10.0	8.6	62.3	34.5	22.8	16.3	11.3	15.9	31.9	25.1	7.5	

3. S구 명품도서관 건립 시나리오

3.1 건립의 정책적 근거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6호(“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와 제15조 제1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일상화 및 문화국가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4차례 지정된 문화도시(현대한국 문화도시) 24곳과 2023년 말에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로 선정된 13곳은 〈표 8〉과 같다.

또한 최근 확정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표 9〉에 간추린 바와 같이 ‘정책목표 2: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표 8〉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 현황(2023. 12)

구분(개수)	강원 (4)	경기 (3)	경남·경북 (4)	부산·대구· 울산·제주(4)	서울·인천 (2)	전라 (4)	충청 (3)
제1차(2020-2024)	원주시	부천시	포항시	영도구 서귀포시	-	-	천안시 청주시
제2차(2021-2025)	강릉시, 춘천시	-	김해시	-	부평시	완주시	-
제3차(2022-2026)	-	수원시	밀양시	-	영등포구	목포시 익산시	-
제4차(2023-2027)	영월군	의정부	칠곡군	달성군, 울산시	-	고창군	공주시
2023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개, 2024년 확정)	속초시	안성시	통영시 진주시 안동시	수영구 수성구		전주시 순천시 진도군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표 9〉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추진과제 '명소도서관 확충'

정책목표	핵심과제	추진과제	실행계획	비고
2.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2-1.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2-1-1.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유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 • 문화중심 도시재생,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명품도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특·광역시 등 지자체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상생발전기금 연계·운용 ★ 문화·예술·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 도시집중 육성(2023년 지정, 문체부) → 2024년 준비기간(지자체) → 3년간(2025-2027년) 50-100억 국비 지원)

에서 핵심과제(2-1.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추진과제의 하나로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을 실행계획으로 제시하였다. 바로 '문화중심 도시재생,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명품도서관 건립'이다.

따라서 2024년부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개 권역에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문화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S구는 2023년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024년 말에 최종 지정된다는 가정하에 S구 비전으로 제시한 '함께 만들고 배려하고 성취하는 문화경제도시, 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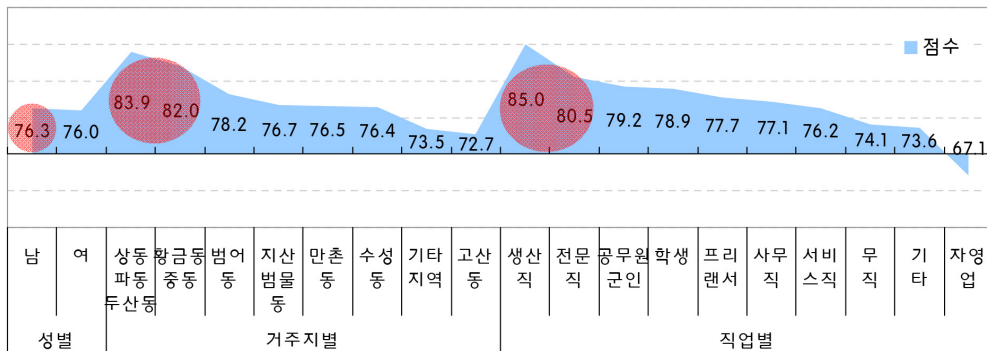
리매김할 수 있는 명품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3.2 건립의 중요성 및 목적

2023년 말 S구 명품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표 10〉을 보면 성별·거주지별·직업별을 불문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75.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그림 1〉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76.3점)가 여자(76.0점)보다 약간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상동·파동·두산동, 황금동·중동, 범어동, 지산·범물

〈표 10〉 S구 명품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및 인식도 점수

구분(응답자수)	응답률(%)					부정	긍정	점수	
	전혀 불필요	별로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성별	남(273)	2.6	7.7	14.7	30.8	44.3	12.0	88.0	76.3
	여(445)	0.9	7.0	17.1	37.3	37.8	9.5	90.5	76.0
거주지별	범어동(156)	0.6	9.0	9.6	38.5	42.3	10.6	89.4	78.2
	만촌동(50)	2.0	6.0	16.0	36.0	40.0	9.5	90.5	76.5
	수성동(55)	1.8	10.9	12.7	29.1	45.5	14.6	85.4	76.4
	황금동·중동(57)	1.8	0.0	19.3	26.3	52.6	2.2	97.8	82.0
	상동·파동·두산동(31)	0.0	0.0	16.1	32.3	51.5	0.0	100.0	83.9
	지산·범물동(90)	0.0	6.7	16.7	40.0	36.7	8.0	92.0	76.7
	고산동(195)	3.6	7.2	20.5	32.3	36.4	13.5	86.5	72.7
	기타 지역(84)	0.0	10.7	17.9	38.1	33.3	13.0	87.0	73.5
직업별	학생(58)	0.0	5.2	17.2	34.5	43.1	6.3	93.8	78.9
	사무직(85)	2.4	7.1	12.9	35.3	42.4	10.8	89.2	77.1
	전문직(96)	0.0	5.2	14.6	33.3	46.9	6.1	93.9	80.5
	공무원·군인(84)	1.2	8.3	10.7	32.1	47.6	0.1	89.3	79.2
	생산직(5)	0.0	0.0	0.0	60.0	40.0	0.0	100.0	85.0
	서비스직(21)	0.0	4.8	19.0	42.9	33.3	5.9	94.1	76.2
	자영업(38)	7.9	10.5	15.8	36.8	28.9	21.9	78.1	67.1
	프리랜서(56)	0.0	5.4	23.2	26.8	44.6	7.0	93.0	77.7
	기타(89)	2.2	5.6	22.5	34.8	34.8	10.1	89.9	73.6
	무직(186)	1.6	9.7	15.6	37.1	36.0	13.4	86.6	74.1
계	1.5	7.2	16.2	34.8	40.3	10.5	89.5	76.3	



〈그림 1〉 S구 명품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및 인식도 점수 순위

동, 만촌동, 수성동의 순으로, 직업별로는 생산직, 전문직, 공무원·군인, 학생, 프리랜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S구 명품도서관 건립

에 대한 인식적 당위성은 충분하다(수성문화재단, 2023, 91).

게다가 S구는 중장기 비전(차별화된 유일한

S구)과 슬로진(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을 통해 5대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교육·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간이 숨 쉬는 문화도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로서의 명품도서관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교육문화도시를 대표하는 S구의 특징과 장점을 내면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식문화 및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 발전,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대규모 랜드마크 도서관을 말한다.

S구 명품도서관 건립의 중요성 및 목적은 <그림 2>와 같이 집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구가 주력하는 전략(미래교육 선도 도시, 공간이 숨 쉬는 문화도시, 따뜻한 공동체)에 가장 부합하면서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S구의 명실상부한 도서관도시,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목적(지식정보, 프로그램, 편의시설·공간, 기획전시, 초청강연, 세미나) 및 복합문화(지식, 독서, 학습, 생활, 여가,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시도의 경쟁도시를 추월하는 S구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충실화 및 지식정보·문

화학습서비스 역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넷째, S구 소재 구립도서관 15개(현 8개관 + 향후 추가 7개관)를 위한 컨트롤 타워 및 기획·정책의 구심체 역할이 기대된다.

다섯째, S구 문화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등)의 연대·협력 주도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구 구민의 소통·공감 공간 제공, 공동체 활동 촉진, 여가문화 일상화를 위한 핫플레이스 및 랜드마크화에 유리하다.

3.3 건립 후보지 평가·선정

S구에 건립될 명품도서관의 랜드마크화를 좌우하는 요체는 건립 위치의 최적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S구 구민 및 D시 시민의 인식도, S구 관광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S구 장기발전종합계획』(2020-203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S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을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수성못이 구민 48.1%, 공무원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접한 들안길 먹거리 타운과 연계하면 구민 70.2%, 공무원 82.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수성구, 대구광역시, 2020, 70).



<그림 2> S구 명품도서관 건립의 중요성 및 목적

〈표 11〉 S구 문화관광 발전에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복수 응답, %)

구분	구민 (N=1,509)	공무원 (N=918)	비고 (응답률 순위)
수성못	48.1	63.8	
들안길 먹거리 타운	22.1	19.0	
범어천	9.2	8.2	
범어대성당	3.8	4.0	
어린이회관	12.9	8.8	
영남제일관	4.4	2.7	
국립대구박물관	16.8	8.3	
대구스타디움	23.8	24.2	
수성아트피아	14.8	12.1	
수성패밀리파크	4.7	4.7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6.5	5.3	
고모령비	5.0	2.6	
모명재	4.2	4.1	
삼성라이온즈파크	13.1	24.7	
나야대령 기념비	2.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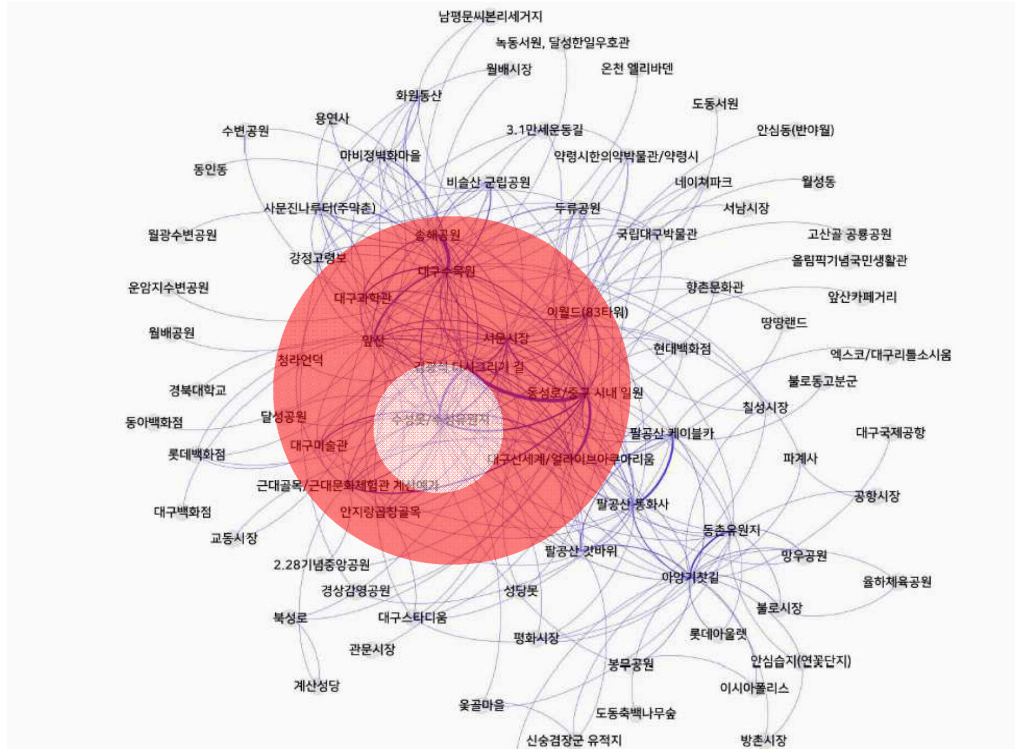
다음으로 2020년 D시 관광전담기구인 대구 관광뷰로가 최근 10년간(2010-2020. 10)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미지 전수 조사와 실제 방문하기 위해 검색한 네이버 데이터랩 서비스 등 총 37,422,618건을 대상으로 키워드 'D시 여행'을 분석·추출한 해시태그를 기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핫플레이스는 두류공원 내 이월드(1위), 수성못(2위), 김광석거리(3위), 두류공원(4위), 동춘유원지(5위), 강정보(6위), 대구수목원(7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D시가 내국인 관광객 2,000명(D시 시민 제외)을 대상으로 주요 여행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동성로·중구 시내 일원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동성로·중구 시내 일원 ↔ 신세계백화점·얼라이브 아쿠아리움', '송해공원 ↔ 대구수목원'으로 나타났다. S구는 유일하게 '수성못·수성유원

지'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대구미술관, 신세계백화점'과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 높았다(대구광역시, 2021, 78).

그리고 2021년 기준 D시 주요 관광지 중 추천하고 싶은 상위 10곳은 〈표 12〉와 같이 대구수목원(21.3%), 동성로·중구 시내 일원(14.4%), 서문시장(11.8%),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10.3%), 송해공원(10.2%), 수성못·수성유원지(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지역별 관광지를 분석한 결과, D시 S구의 중심 관광지 1순위는 '수성못'으로 나타났고, 연관 관광지 5곳의 순위는 신세계백화점(쇼핑), 서문시장(쇼핑), 수성유원지(문화관광), 중구 현대백화점(쇼핑),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문화관광)로 나타났다(대구광역시, 2021, 79).

이어 2023년 수성문화재단이 S구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랜드마크 도서관(명품도서관) 건립



〈그림 3〉 D시 주요 여행경로 연결성 분석 결과

〈표 12〉 D시 관광지 중 추천하고 싶은 곳 1순위(복수 응답, %)

구분	2018 (N=2,036)	2019 (N=2,022)	2021 (N=2,000)	비고 (2021년 순위)
대구수목원	14.4	11.0	21.3	대구수목원 21.3
동성로/중구 시내 일원	22.9	10.4	14.4	동성로 · 시내 14.4
서문시장	21.6	18.6	11.8	서문시장 11.8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20.9	13.1	10.3	김광석 길 10.3
송해공원	0.2	3.7	10.2	송해공원 10.2
수성못 · 수성유원지	10.9	8.1	8.9	수성못 · 유원지 8.9
이랜드(83타워)	11.5	12.5	8.1	대구과학관 8.1
대구과학관	5.5	4.4	8.1	이랜드 8.1
팔공산	7.7	6.8	6.4	팔공산 6.4
신세계/아쿠아리움	1.5	1.8	6.0	대구신세계 6.0

후보지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조사한 결과, 〈표 13〉에 집계한 것처럼 연호 · 대흥동(35.8%), 범어 · 만촌동(22.7%), 황금동(19.9%), 지산 · 범

물동(1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 응답자수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감안

〈표 13〉 S구 명품도서관 건립 후보지 적절성(%)

구분(응답자수)		연호 대흥동	범어 만촌동	황금동	지산 범물동	파동	기타	비고
성 별	남(273)	34.1	22.7	16.1	17.9	4.8	4.4	
	여(445)	36.9	22.7	22.2	13.3	1.6	3.4	
거 주 지 별	범어동(156)	14.7	51.3	28.2	2.6	1.9	1.3	
	만촌동(50)	34.0	46.0	12.0	2.0	4.0	2.0	
	수성동(55)	14.5	45.5	12.7	14.5	3.6	9.1	
	황금동·중동(57)	5.3	3.5	78.9	5.3	1.8	5.3	
	상동·파동·두산동(31)	6.5	3.2	38.7	22.6	29.0	0.0	
	지산·범물동(90)	3.3	2.2	5.6	86.7	1.1	1.1	
	고산동(195)	83.1	6.7	2.6	1.0	0.5	6.2	
기타 지역(84)	46.4	20.2	22.6	6.0	1.2	3.6		
직 업 별	학생(58)	44.8	25.9	20.7	6.9	1.7	0.0	
	사무직(85)	31.8	18.8	23.5	14.1	5.9	5.9	
	전문직(96)	27.1	26.0	24.0	13.5	7.3	2.1	
	공무원·군인(84)	48.8	17.9	22.6	6.0	0.0	4.8	
	생산직(5)	20.0	0.0	20.0	60.0	0.0	0.0	
	서비스직(21)	33.3	19.0	28.6	14.3	0.0	4.8	
	자영업(38)	10.5	34.2	21.1	23.7	2.6	7.9	
	프리랜서(56)	46.4	21.4	17.9	12.5	0.0	1.8	
	기타(89)	40.4	20.2	16.9	15.7	0.0	6.7	
	무직(186)	33.9	24.2	15.6	20.4	3.2	2.7	
계(718)	35.8	22.7	19.9	15.0	2.8	3.8	-	

하면 신뢰성이 높은 응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수성문화재단, 2023, 93).

마지막으로 S구가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어 4년간(2024-2027)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려면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서류(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 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를 제출하여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를 위한 '사전평가 지표'는 〈표 14〉와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따라서 S구가 명품도서관 후보지를 고민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표'에서 정책적 타당성 중 '건립 중요성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10)'와 기술적 타당성 중 '입지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15)'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한 후보지로는 수성 구민 인식도 조사에서 가장 높았던 미술관(D시립, 간송)·D스타디움 등을 연계한 연호·대흥동 일대, 아파트 단지(황금동, 지산·범물동)를 배후로 수성아트피아·용지봉·들안길 먹거리 타운 등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성못 인근,

〈표 14〉 S구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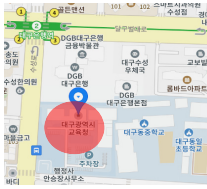
평가영역	평가기준(배점)	평가지표	배점
1. 법률적 타당성	1-1. 법적 요건 충족(10)	① 대상 공공도서관 면적 규모 및 건립 단가 적정성	5
		② 사서 배치 및 장서 구비 기준 충족	5
2. 정책적 타당성	2-1. 상위기관 계획 반영·연계(5)	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지자체 발전계획 연계·반영	5
	2-2. 건립 중요성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10)	② 설립·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	5
		③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지역사회발전 기여	5
3. 기술적 타당성	3-1. 계획수립의 충실성(15)	①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른 계획 수립	5
		② 지역주민 서비스 수요조사 및 반영	5
		③ 봉사권역에 의한 도서관 위치 적정성	5
	3-2. 운영계획의 적합성(20)	① 운영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5
		② 계획 로드맵 및 예산(건립비, 총사업비)의 적정성	5
		③ 조직·인력·장서 계획의 우수성과 실천가능성	5
		④ 도서관 서비스(취약계층 포함) 제공 타당성	5
	3-3. 입지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15)	① 건립 예정지의 접근·이용 편의성	5
		② 설계공모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5
		③ 공간구성, 동선계획, 사인시스템 적정성	5
	3-4. 건립주체의 역량과 의지 및 활성화 계획(15)	① 도서관 운영실적(최근 3년 예산, 인력, 자료 확보)	5
		② 기존 도서관의 위탁운영 비율	5
③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이용객 확보 계획 및 예상 근거		5	
4. 행정절차 준수	4-1. 행정절차 및 업무지침 준수·협조(10)	① 지자체 자체기준 및 유사사업 행정절차 준수	5
		② 도서관 건립사업 및 업무(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 관련 지침 준수·협조	5
계		-	100

범어공원으로 이전이 확정된 현 수성구청 부지, 현 D시 교육청 부지를 들 수 있다. 각각을 비교·평가하면 〈표 15〉와 같다.

요컨대 S구 명품도서관 건립 후보지 중 연호 공공주택지구는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부지확보 용이성과 교통 편의성을 제외한 평가항목(인지도, 가시성, 낙수효과, 랜드마크 가능성)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에 〈그림 4〉의 수성못(면적 162,800㎡, 둘레 2,202m) 인근은 부지확보가 어려움에도 가장 적합한 위치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방문객이 하루 2만 명, 주말 3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인접한 들안길 음식점 거리와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순위는 2029년 범어공원으로 이전이 확정된 현 구청(부지 11,302㎡, 연면적 13,491㎡), 3순위는 수성구청과 함께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D시 교육청 부지(13,200㎡)를 제시하였다.

〈표 15〉 S구 명품도서관 건립 후보지 평가

구분		연호·대흥동 일대	수성못 인근	현 S구구청 부지	현 D시교육청 부지
위치					
인지도	높음(10)		■	■	
	보통(5)	■			■
가시성	높음(10)		·수성못 주변 고도 건물 없음	·달구벌대로 범어네거리	
	보통(5)				·대구은행 본점 뒤편
	낮음(1)	·분지(담티고개와 솔정고개 사이)			
교통 접근성	우수(10)	·지하철 2호선 연호역 인근, 도심 외곽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시내버스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앞+시내버스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인접+시내버스
	보통(5)				
낙수(기대) 효과	높음(10)		·수성못+들안길 먹거리타운 이용객		
	보통(5)	·계획인구 1만명(법조, 산업, 주거)		■	■
랜드마크 가능성	높음(30)		·수성못 연계	·범어네거리	
	보통(20)				■
	낮음(10)	■			
부지 확보 용이성	높음(30)	■			
	낮음(10)		·용도변경, 사유지 매입·대토보상	·현 부지매각, 청사 건립 추진(범어도서관 용도 변경 필요)	·교육청도 함께 이전(교육청 재산 매입필요)
최종 평가		61	80	75	55



〈그림 4〉 S구 명품도서관 건립 후보지(우측 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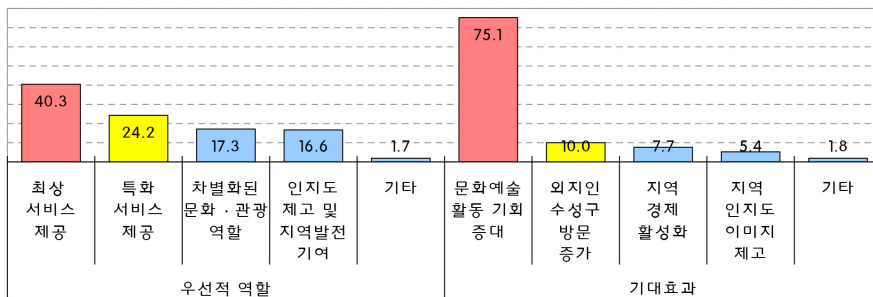
3.4 핵심적 역할과 기대효과

S구에 명품도서관이 건립될 경우에 가장 우

선되어야 할 역할 및 기대효과는 <표 16> 및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수성문화재단, 2023, 95-97).

<표 16> S구 명품도서관의 우선적 역할과 기대효과(%)

구분(응답자수)	우선적 역할					기대효과					
	최상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디자인, 음악 등) 제공	차별화된 문화·관광 역할	인지도 제고 및 지역발전 기여	기타	문화예술 활동 기회 증대	외지인 방문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인지도·이미지 제고	기타	
성별	남(273)	37.7	22.3	19.8	17.2	2.9	70.3	10.6	9.5	6.6	2.9
	여(445)	41.8	25.4	15.7	16.2	0.9	78.0	9.7	6.5	4.7	1.1
거주지별	범어동(156)	46.2	18.6	15.4	18.6	1.3	79.5	10.3	6.4	3.2	0.0
	만촌동(50)	46.0	26.0	16.0	12.0	0.0	80.0	12.0	6.0	2.0	0.0
	수성동(55)	45.5	20.0	21.8	9.1	3.6	74.5	5.5	5.5	10.9	3.6
	황금동·중동(57)	38.6	24.6	24.6	10.5	1.8	64.9	12.3	10.5	8.8	3.5
	상동·과동·두산동(31)	48.4	25.8	16.1	9.7	0.0	71.0	16.1	9.7	3.2	0.0
	지산·범물동(90)	43.3	18.9	17.8	20.0	0.0	72.2	7.8	12.2	6.7	1.1
	고산동(195)	36.4	23.6	17.4	19.0	3.6	73.8	10.3	7.7	4.6	3.6
	기타 지역(84)	26.2	42.9	13.1	17.9	0.0	78.6	9.5	4.8	7.1	0.0
직업별	학생(58)	36.2	19.0	27.6	13.8	3.4	55.2	17.2	17.2	10.3	0.0
	사무직(85)	32.9	21.2	21.2	24.7	0.0	70.6	12.9	10.6	4.7	1.2
	전문직(96)	34.4	30.2	18.8	15.6	1.0	77.1	9.4	6.3	6.3	1.0
	공무원·군인(84)	40.5	25.0	17.9	15.5	1.2	76.2	13.1	3.6	6.0	1.2
	생산직(5)	0.0	40.0	40.0	20.0	0.0	80.0	0.0	20.0	0.0	0.0
	서비스직(21)	28.6	23.8	19.0	23.8	4.8	71.4	4.8	14.3	0.0	9.5
	자영업(38)	55.3	10.5	10.5	18.4	5.3	71.1	5.3	7.9	7.9	7.9
	프리랜서(56)	35.7	35.7	12.5	14.3	1.8	76.8	7.1	7.1	8.9	0.0
	기타(89)	39.3	20.2	19.1	18.0	3.4	77.5	11.2	3.4	4.5	3.4
	무직(186)	48.9	24.7	12.4	13.4	0.5	81.2	7.5	7.0	3.2	1.1
계(718)	40.3	24.2	17.3	16.6	1.7	75.1	10.0	7.7	5.4	1.8	



<그림 5> S구 명품도서관의 핵심적 역할 및 기대효과

구립 명품도서관이 건립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최상의 도서관서비스 제공(40.3%), 디자인·음악·미술 등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제공(24.2%),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역할(17.3%), 지역 인지도 제고 및 발전기여(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거주지별(기타 지역 제외)·직업별(생산직 제외) 순위도 동일하였다.

한편, 구립 명품도서관이 건립·운영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기회 증대(75.1%), 외지인의 관광·비즈니스 등을 위한 S구 방문 증가(10.0%), 지역 경제 활성화(7.7%),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5.4%)의 순으로 높았으며, 성별·거주지별·직업별(생산직 제외) 순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S구에 건립될 명품도서관은 <그림 6>과 같이 8가지 핵심기능 수행을 전제로 구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우산적 역할, S구 도서관·독서문화를 총괄하는 정책적 역할, 구립도

서관 장서의 공동보존 역할, S구 지식문화 명소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 등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 고취, S구의 지식문화 발전, 지역활력 촉진, 전국 최고 수준의 지식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3.5 건립규모 및 비용 추계

먼저 S구 구립도서관 중장기 계획의 최종 목표 연도(2033년)와 서비스 인구(370,760명)를 감안한 명품도서관 건축규모는 범어도서관(5,943㎡)의 2배에 달하는 약 10,000㎡(지상 3층, 지하 2층)로 제안한다. 그 이유는 공동보존서고, 기획·테마 전시공간, 개인 연구공간, 층별 스타디움·사랑방 배치, 법정 주차대수 확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수정구의회, 2021).

다음으로 S구 명품도서관 연면적 10,000㎡의 공간별 구성 및 세부 항목별 소요면적을 제시하면 <표 17>과 같으며, 주요 공간별 점유비율은 자료·이용공간 43.3%, 문화·학습·특화공간



<그림 6> S구 명품도서관의 핵심적 기능 및 역할 모형

〈표 17〉 S구 명품도서관 공간구성 및 소요면적 계획

구분	실(공간)		면적 (㎡)	소계 (%)	비고	
자료 이용 공간	종합	• 일반자료 • 지역(향토) 자료	1,060	4,325 (43.3)	수장: 10만권 서가 6단, 여유공간 20%	
	장애인 노인	•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 큰 활자·소리도서	110		종합실의 10% 적용	
	어린이	• 자료	430		수장: 2만권 기준, 서가 3단, 여유공간 20%	
		• 문화(스토리텔링)	70		-	
		• 수유	70		-	
	다매체	• 멀티미디어+디지털	350		-	
	특수자료실	• 고서, 귀중서 등(서장 4개)	400		서장당 100권 수장	
	보존서고	• 폐가서고, 이관자료	1,590		수장량: 30만권	
배치손실률(%)		245	6% 적용			
문화 학습 특화 공간	문화·학습	• 대형 세미나실(200명 수용)	500	2,014 (20.1)	다목적 공간, 1인당 2.5㎡	
		• 강좌실(5개)	350		1실당 70㎡	
		• 전시실	120		-	
	특화공간	• 개인열람석(2-3층, 20개)	40		1개당 2㎡	
		• 스테디룸(2-3층, 10개)	700		6인용 기준, 1개당 70㎡	
		• 메이커스페이스	70		-	
		• 공동체(동아리) 공간(4개)	120		1개당 30㎡	
배치손실률(%)		114	6% 적용			
업무 공간	사무	• 관장실(부속실 포함)	50	1,245 (12.5)	-	
		• 사무실(50명 기준**)	580		1인당 11.6㎡	
		• 워크스테이션 공간	175		직원 ½ × 7.0㎡	
		• 내방객 접견실	30		-	
		• 직원회의실	50		직원 1인당 1㎡	
		• 전산실	50		-	
	관리	• 자료반입 창고	100		-	
		• 정보데스크	30		-	
		• 사물함실	50		-	
		• 자원봉사실	30		-	
		• 당직실 등	30		-	
		배치손실률(%)			70	-
		공유 공간	공용		• 로비, 계단, 통로, 화장실	1,430
휴게	• 휴게실, 북카페(카페테리아)		140	각 실 70㎡		
기계·전기	• 연면적의 4%		384	주차장 기준: 바닥면적 150㎡당 1대		
주차장	• 지하 33대(지상 제외)		462	1대 면적: 2.6×5.2m(장애인용 4% 포함)		
계			10,000	10,0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p.23을 수정·보완함

* 서가(2면 6단 양면)당 면적과 수장책수: 개가제 5.3㎡과 600권(정상배가), 폐가제 3.7㎡와 700권(밀집배가) 적용

** 직원수 산출: 기본 4명 + 증원 46명(2033년 서비스 대상인구 370,760명 - 20,000명 ÷ 20,000명) + (10,000㎡ - 330㎡ ÷ 330㎡)

20.1%, 업무공간 12.5%, 공유공간 24.2%로 구성하면 무리가 없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23).

그리고 건립비용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1㎡당 표준 건축비(설계비·감리비 제외)가 조달청(2023년 공공청사)은 2,770천원, 국토교통부(2023년)는 2,257천원,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8월, ICT 솔루션 포함)는 건설공사비지수(147.39)를 적용한 3,674천원(연면적 2,500㎡ 미만)-3,231천원(연면적 5,000㎡ 이상), 서울

시(2022년 공공도서관)는 신축 평균 공사비를 3,899천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9-2023) 신축된 8개관의 층고, 연면적, 공사비를 집계한 <표 18>에서 최근 3년간(2021-2023) 1㎡당 공사비를 산출하면 평균 3,320천원으로 나타났다(나라장터, 2024).

마지막으로 S구 명품도서관 신축 공사비를 <그림 7>의 전제조건을 반영하여 추계하면 <표 19>와 같다.

<표 18> 공공도서관 신축 면적 및 공사비 비교(2019-2023)

발주 연도	공공도서관	층수		연면적 (㎡)	공사비*	
		지하	지상		㎡당(천원)	계(억원)
2019	배곧도서관(경기 시흥)	1	2	3,896	3,066	119.4
2019	위례도서관(경기 하남)	1	3	2,218	3,084	68.4
2020	마산도서관(경기 김포)	1	3	3,408	2,866	97.7
2020	강서유치원·양산도서관(경남 양산)	1	3	8,565	2,507	214.7
2021	운양도서관(경기 김포)	1	3	8,683	3,047	264.6
2022	동탄중앙도서관(경기 동탄)	4	5	10,488	3,531	370.3
2022	중부도서관(울산 중부)	1	3	7,012	3,192	223.8
2023	면목동도서관(복합시설, 서울 중랑구)	3	4	7,357	3,509	258.2
평균(2021-2023년)		2.3	3.8	8,385	3,320	279.2

* 발주자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보상비·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건축물 성격: 제3종(복잡, 상급)
- 공사비: 용지비, 부지 매입(또는 보상)비, 법률 수속비, 부가가치세 제외
- 신축 공사비 평균 단가: 350만원(2022년 서울시 공공도서관(6,000㎡ 초과) 신축비 기준 378만원과 202-2023년 공공도서관 신축비 평균 332만원의 평균)
- 시설부대비: 공사비의 25%(인테리어, 가구, 제로에너지, ICT 솔루션)
- 시간차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정 공사비: 평균 단가 350만원 ×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 153.58(p) (비주거용 건물, 2023년 10월 기준)
- 건축설계 대가요율: 5.32%(「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 별표 4(공사비 300억 기준))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1.1%(「국토교통부고시」, 별표 5(공사비 300억 기준))
- 물가상승률: 2%(최근 5년 평균)

*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2000년 생산자 물가를 100으로 간주하여 생산자물가지수 및 건설자재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 변동률을 측정하는 치수로 2021년 10월(잠정)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 100 기준)는 139.25임(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3).

<그림 7> S구 명품도서관 신축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

〈표 19〉 S구 명품도서관 신축 공사비 추계(2023 기준)

구분		산출내역	금액(억원)	
			소계	계(①+②)
공사비	건축공사비	• 연면적(10,000㎡ 기준): 10,000㎡ × 404만원[350만원(서울시·최근 3년간 도서관 신축비 평균단가) × 0.15358(2023년 8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	404.8	531.75 (약 532억원)
	시설부대비	• 건축공사비(404.8억원) × 25%	101.0	
	소계(①)	-	505.8	
용역비	설계용역비	• 공사비 404.8억원 × 5.32%	21.5	
	감리비	• 공사비 404.8억원 × 1.1%	4.45	
	소계(②)	-	25.95	

다만, S구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문화중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경우, 국비 50-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면 D시와 S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명품도서관은 S구에 거점관이나 분관을 건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연면적 22,273㎡, 약 1,431억 원 투입)처럼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문화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요약 및 제언

모든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복합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서비스, 개방형 시설·공간을 통한 커뮤니티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재이자 문화기반시설이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명품도서관은 거의 없다. 이

에 본 연구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D시 S구를 대상으로 명품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건립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품도서관 건립의 정책적 근거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수립·공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정책 목표 2(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로 '문화중심 도시재생,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명품도서관 건립'이다.

둘째, 명품도서관 건립은 S구가 주력하는 미래교육 선도도시, 공간이 숨 쉬는 문화도시, 따뜻한 공동체에 부합하고, S구를 명실상부한 도서관도시,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 격상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구립도서관을 위한 컨트론타워 및 기획·정책의 중심체 역할이 기대되고, 지식문화기관의 연대·협력을 주도하여 S구 랜드마크 및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명품도서관 건립 후보지는 수성못(면적 162,800㎡, 둘레 2,202m) 인근이 가장 적합하다.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인해 방문객이 하루 2만 명, 주말 3만 명을 상회하며 문화체육관

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 선정되었고, 인접한 들안길 음식점 거리와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넷째, 명품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은 구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우산적 역할, S구 도서관·독서문화를 총괄하는 정책적 역할, 구립 도서관 장서의 공동보존 역할, S구 지식문화 명소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 등이다. 구민의 자긍심 고취, S구의 지식문화 발전, 지역활력 촉진, 고품격 지식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명품도서관 건립규모는 연면적 10,000㎡ 내외가 적당하다. 주요 공간별 점유비율은

자료·이용공간 43.3%, 문화·학습·특화공간 20.1%, 업무공간 12.5%, 공유공간 24.2%로 구성하면 무리가 없다.

요컨대 명품도서관은 거점관이나 분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명품도서관 건립의 절대적 조건은 접근·이용의 편의성, 위치의 상징성 및 인지도, 건물 디자인 및 공간구성의 독창성과 매력, 장서의 역사성과 특성화 등이다. 한마디로 '와우 효과'를 창출하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따라서 S구는 물론 향후 다른 자치단체가 명품도서관 건립을 구상할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문화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 간주·추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나라장터 (2024. 1. 12.). 유형별 공사비.

출처: <https://pcae.g2b.go.kr:8044/pbs/psa/psa0070/index.do?cciCd01=0101>

대구광역시 (2020). 대구시 장기발전계획.

대구광역시 (2021). 대구 관광 실태조사 (53-6270000-000684-10).

대구광역시 (2022).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53-6270000-000769-01).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2028. 서울: 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23).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설명자료.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수성구, 대구광역시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2020-2030.

수성구의회 (2021). 수성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수성문화재단 (2023). 수성문화재단 운영시설 인지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윤희운, 오선경 (2023).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97-117.

<http://doi.org/10.4275/KSLIS.2023.57.3.09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1. 12.). 2021년 10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출처: <https://cost.kict.re.kr/#/notice/file/detail/31066?page=0;category=total>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4, 1. 12.).

출처: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TourLocalDataForm.do#>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Daegu Metropolitan City (2020). Daegu Long Term Development Plan.

Daegu Metropolitan City (2021). Daegu Tourism Survey (53-6270000-000684-10).

Daegu Metropolitan City (2022). A Study on How to Expand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53-6270000-000769-01).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024, January 12). Construction cost index trends October 2021. Available:

<https://cost.kict.re.kr/#/notice/file/detail/31066?page=0;category=total>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2024, January 12). Construction costs by type. Available:

<https://pcae.g2b.go.kr:8044/pbs/psa/psa0070/index.do?cciCd01=0101>

Korea Tourism Date Lab (2024, January 12). Available: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TourLocalDataForm.d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2022 Public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ua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Public Library Construction Pre-Assessment Fact Sheet.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Seoul: The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2). Seoul's Guidelines for Estimating Construction Costs for Public Buildings.

Suseong Culture Foundation (2023).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useong Cultural Foundation's Facility Awareness and User Satisfaction Survey.

Suseong-gu Council (2021). Study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Suseong-gu Library.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2020). Suseong-gu Long-term Development Master Plan:

2020-2030.

Yoon, Hee-Yoon & Oh, Seon-Kyung (2023).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posals for policy tasks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43-65. <http://doi.org/10.4275/KSLIS.2023.57.3.097>

